

문 의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과 장 서창대 사무관 구정민	042-481-5182 042-481-5992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2021년 6월 1일(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러시아·멕시코에 해외지식재산센터 신설

- 현지 상표·디자인 출원, 위조품 조사·단속 및 지재산 상담 지원 -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 이하 코트라)는 러시아 모스크바와 멕시코 멕시코시티에 해외지식재산센터(이하 IP-DESK)를 신설, 6월 1일(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IP-DESK는 현재 9개국(미국, 중국, 일본, 독일, 베트남,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의 15개 코트라 무역관에 설치되어 있으며, 수출기업이 각종 지식재산권 애로를 현지에서 신속하게 해소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러시아와 멕시코는 2020년 수출금액 기준 각각 13위와 11위 국가로, 앞으로 우리기업 진출이 지속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 신흥시장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기존에 한국산 제품이 인기를 끌던 식품·소비재 외에도, 신북방 정책과 한-러 경제협력 강화에 힘입어 혁신기술, 제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우리기업 진출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양국이 위치한 중남미와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은 한류 인기로 한국산 제품의 위조품 유통, 상표 무단선점 등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침해 위험이 높아지는 곳이기도 하다. 한국산 기업으로 위장하여 한국 제품의 모방품을 판매하는 일명 ‘한류 편승 외국계 유통기업’ 매장은 ‘20년도 10월 조사 결과 전년 대비 중남미에서 약 62%, CIS에서 43% 증가했다.

* 중남미: (’19.9) 104개 → (’20.10) 168개 / CIS: (’19.9) 21개 → (’20.10) 30개

이번에 신설되는 IP-DESK는 러시아 및 멕시코 현지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애로사항을 상담하고, 상표·디자인 출원이나 위조품 단속, 권리 침해자에 대한 경고장 작성 등을 위한 현지 대리인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지식재산 유관기관과 교류·협력을 강화하여 우리기업에 우호적인 지재권 보호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러시아와 멕시코는 성장 잠재력이 큰 시장인 동시에, CIS와 중남미 권역 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는 주요 국가이기도 하다.”라며, “IP-DESK는 신흥시장을 개척하는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해외 지재권 보호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현지에서 밀착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붙임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사진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재산보호지원과 구정민 사무관(☎ 042-481-599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사진 설명>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는 5월 26일(수) 모스크바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신설에 따른 현판식을 진행했다.

* 참석자(왼쪽부터) : 주러시아대사관 박정미 상무관, 주러시아대사관 김진동 공사참사관, 주러시아대사관 지규택 경제공사, KOTRA 이정훈 CIS 지역본부장, 법무법인 현 러시아 양정아 대표, KOTRA 이상문 차장



<사진 설명>

특허청(청장 김용래)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사장 유정열)는 5월 26일(수) 멕시코시티 해외지식재산센터의 개소를 축하하기 위해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 참석자(왼쪽부터) : KOTRA 김민정 대리, KOTRA 권준섭 부관장, KOTRA 김기중 중남미지역본부장, 주멕시코대사관 서정인 대사, 주멕시코대사관 엄재영 상무관